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 꽃피어나는 대지

평원군 매전리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을 더듬어

평원군 읍에서 서해쪽으로 40리 가량 나가면 무성한 보루나무, 아카시아나무, 수삼나무들이 마치 방울뚱을 뽐내듯 하는 아담한 마을이 한눈에 안겨온다.

갖가지 과일나무들로 수려한 인제산을 배경으로 뽐내며 들어앉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연구실을 중심으로 구석이 맞게 조화를 이룬 리문화회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 버섯농장, 양어장...

여기가 평원군 매전리였다. 한쪽으로는 끝간대없이 펼쳐진 논밭이 안겨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서해가 무연하게 펼쳐져 보기도 희한한 감정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매전리.

기슭을 때리는 파도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행정포에서 우리는 김리관리위원장을 만났다.

만나고보니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죄의 동혼전설구상을 앞장서 꽃피울 불타는 열정으로 장학금을 졸업하자마자 농촌에 진출한 소령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동무였다.

외진 바다가마을인데도 얼마나 잘 꾸려왔는지 도시의 한 구획을 방불케 한다는 우리의 감탄에 그는 자못 신중함 없이 말하라는 것이었다.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때와 함께 생각할수 없듯이 바다가 한끝에 자리잡은 우리 매전리에도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려있습디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덧 저 멀리 38년전적 그날에 이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신다는 현저지도의 한층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농민들이 쌀을 헐게 생산하게 되어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히 할것을 생산할 때 밭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이 나라 농촌들을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신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현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서해 한끝인 매전리를 찾으신것은 주제 62

(1973)년 3월 어느날이었다. 3월의 해빙기는 쌀알하기 그지없이 어버이수령님의 웃음으로 찬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기름진 옥토로 전변된 드넓은 간석지, 불수륙 아름다운 조국의 한 부분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은 마냥 즐거우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득하게 펼쳐진 수평선 저 멀리를 가리키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서해안의 간석지를 다 개간하여 벼농사를 할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앞바다의 간석지를 다 개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천정보의 논면적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저 간석지를 다 개간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더 유족하게 살수 있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필요한 땅을 더 많이 넘겨줄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오라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나가시며 그 길에서 민족만대변 영의 위대한 시대를 장엄히 펼쳐 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리레 일 군들은 격정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 다시금 온 들만에 메아리쳤다. 앞쪽생산에미가 있고 전방이 큰 이런 곳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앞물이 그만큼 쏟아져 나올다. 여기에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기름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집중적으로 대우어 앞물을 많이 내 도와야겠습디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우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모신것만 하여도 너무도 골짜기는 행운인데 농정에 대하여 이토록 귀중 한 가르침을 주시디나!

이런말을 듣고는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매전리의 현모이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제방도 든든히 쌓아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있었지만 아직은 벌 방치대에 비하면 논과 밭에 대충 물도 부족하여 예로가 많은 농장이였다.

이 모든 실태를 속속들이 헤아려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고장 농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물문제도 즉 시에서 풀어주시였다.

물문제를 풀지 않고 간석지만 개간하여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여기는 평야평간의 말단구역이므로 지금도 물이 부족한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될것이라고, 이 지대에서는 물문제를 풀어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고 앞으로 개간될 간석지도 물을 충분히 대줄수 있다고, 평야말단개간사업에서는 물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공급망체계에 따라 물을 계획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평야말단개간사업의 간석지농작업이 불부족을 모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하려면 어버이수령님의 뜻은 이렇듯 다심하고 온정넘치는것이였다. 령도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마을을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신시킬 위대한 설계를 펼쳐주시였다.

평원군당위원회에 파업을 주어 이 부탁을 개명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여기 농촌부락을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개명시키 하겠다고. 인제산기슭 중심부에 탁아소와 유치원, 농업과학기술직선직선립을 현대적으로 짓고 그 좌우에 농촌문화주택을 줄지어 규모있게 지으면 참 멋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인제산에 파수원을 조성하면 리상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신될것입니다. 도와 군에서 인제산농장을 리상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을 짓게 꾸려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것이 못할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빛나게 꽃피는 영광의 땅 매전리.

보이는 모든것, 들리는 모든것, 격정을 자아내게 하는 위대한 령도의 자욱 뜨겁게 어렸이는 농장마을이었다.

렉사의 그날로부터 매전리는 참으로 멀리 달려왔다.

영생량 양옆에 들어앉은 공공건물들과 공원처럼 꾸러진 소재지구역, 인제산기슭에 가없이 펼쳐진 사과, 배, 복숭아동산...

그 옛날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말그대로 천치개벽을 안아왔다.

오늘 매전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원속의 마을과도 같이 농장심하고 크지 않은 성과도 대견히 여기시며 높이 일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었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쌀로써 만들려는 이땅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열정을 귀중히 여기시어 최근년간만도 두차례에 걸쳐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신 어버이수령님.

지금 매전리엔 어버이수령님을 농장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리움의 열풍이 되어 사람도 산천도 뜨겁게 달아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작업이 평가하진 농장들의 모범을 본받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매전리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장으로 더 잘 꾸러려는 분발심의 불꽃이다.

오늘의 매전리로 꽃피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속도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길에 펼쳐나신 이 고장 사람들의 열의에 의하여 매전의 매전리는 또 얼마나 눈부신 현실이였다.

벌리 출장길에서나 마을을 갔다 가도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구해가지고 자기 고향땅에 심는것이 오늘 이 고장 사람들의 미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농장원들의 가슴속엔 농장에 찾아오시어 마을을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꾸러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가득차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오늘처럼 살기 좋은 리상농촌으로 전변된 우리 농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이런 심장의 목소리로 두발을 뜨겁게 적시는 농장원들이 령도의 땅 매전리사람들이었다.

오늘 매전리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 번영의 한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 역, 인제산기슭에 가없이 펼쳐진 사과, 배, 복숭아동산...

오늘 매전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원속의 마을과도 같이 농장심하고 크지 않은 성과도 대견히 여기시며 높이 일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었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쌀로써 만들려는 이땅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의 열정을 귀중히 여기시어 최근년간만도 두차례에 걸쳐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신 어버이수령님.

지금 매전리엔 어버이수령님을 농장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리움의 열풍이 되어 사람도 산천도 뜨겁게 달아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작업이 평가하진 농장들의 모범을 본받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매전리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장으로 더 잘 꾸러려는 분발심의 불꽃이다.

오늘의 매전리로 꽃피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속도이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길에 펼쳐나신 이 고장 사람들의 열의에 의하여 매전의 매전리는 또 얼마나 눈부신 현실이였다.

벌리 출장길에서나 마을을 갔다 가도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구해가지고 자기 고향땅에 심는것이 오늘 이 고장 사람들의 미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농장원들의 가슴속엔 농장에 찾아오시어 마을을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꾸러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가득차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오늘처럼 살기 좋은 리상농촌으로 전변된 우리 농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매전리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 번영의 한길로 줄달음치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주제 85 (199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꾼들과 지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앞쪽생산을 높이는 데서 주체농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게끔 대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특성, 매 포건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농사를 짓는 과학적인 농법이며 논과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농법이라고 그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농사의 주인은 농민이며 농사를 잘 하는것도 농민들인것 만큼 농사의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

어 책임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과학자들이 연구한것도 협동농장의 포전에 심고 가꾸면서 농민들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사에서 품종과 종자, 비배관리방법도 해당 지역 농민들의 의사와 매 포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고 적지적각, 적기적각의 원칙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사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고귀한 지침이였다.

평가해주시는 문제

주제 91 (2002)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의 한 농장을 찾아 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들이 일제이고 종합수확기들이 줄지어 달리는 농장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방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에서 접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이 농장에서 올해에 두 번 농사의 현실적가능성과 우리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오늘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사실 이 농장은 땅이 척박하여 지난 시기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한 고장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장에서 앞으로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든든히 끌어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한 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한동안 농장포전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의 한 농장을 찾아 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들이 일제이고 종합수확기들이 줄지어 달리는 농장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방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에서 접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이 농장에서 올해에 두 번 농사의 현실적가능성과 우리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오늘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사실 이 농장은 땅이 척박하여 지난 시기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한 고장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농장에서 앞으로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든든히 끌어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한 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보내었다. **프로텐 캄보자 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페하**는 생일 58년을 맞은 국왕께하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국왕께하가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와 인민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믿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장수산에 어린 어버이사랑

정각앞으로는 짝이저너뜻 한 겹꽃은 기암절벽들이 키돋움을 하며 절경을 이루고있었다. 한 일꾼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위판으로 난 길을 가리키드리며 저 탐승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면 유명한 세시복 반들이나 찾아왔지만 지금은 장군님의 은덕으로 인민의 문화주택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동안 생각해 주시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두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였다.

창조적인 관점이 문제를 푼다

얼마전 우리는 북청군 청해협동농장을 찾았다. 2층으로 훌륭히 일떠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과 아담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 잘 꾸러진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 유치원 등 농장의 문화적면모는 경관을 뒤흔들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혁명수행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본보기단위창조와 경험의 일반화

은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내가 겪은 경험은 나 자신의 경험과 경험의 일반화이다. 9작업반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올해 모내기철전으로 많은 면적의 논밭을 진행하는 혁신이 창조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보기단위창조와 경험의 일반화

은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내가 겪은 경험은 나 자신의 경험과 경험의 일반화이다. 9작업반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올해 모내기철전으로 많은 면적의 논밭을 진행하는 혁신이 창조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보기단위창조와 경험의 일반화

은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내가 겪은 경험은 나 자신의 경험과 경험의 일반화이다. 9작업반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올해 모내기철전으로 많은 면적의 논밭을 진행하는 혁신이 창조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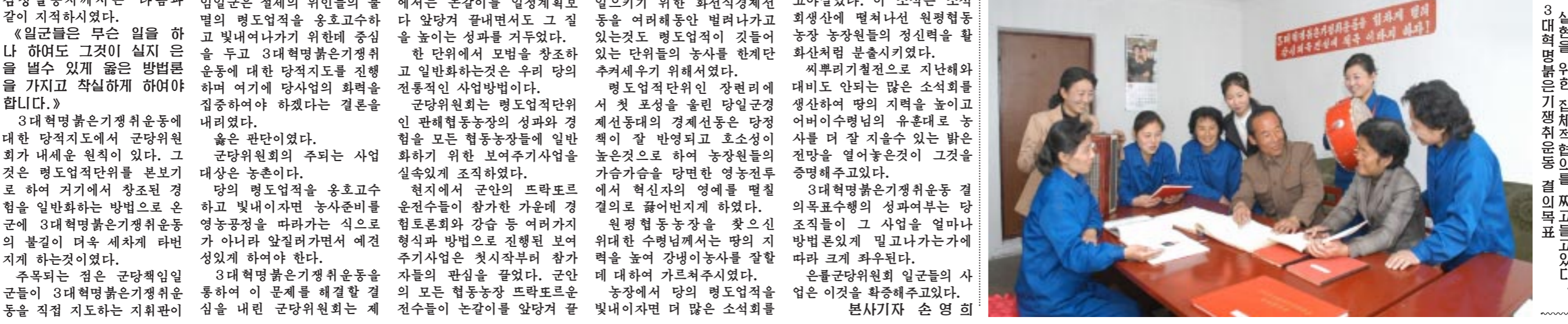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본보기단위창조와 경험의 일반화

은를군당위원회는 곤알에 나선 모든 파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찾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방법론적으로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몇해동안 군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장, 구별농장 제 6작업반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또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그중 10여개의 령도업적단위가 사상, 기술, 문화의 새기록을 세우며 양적으로 대량되고있는 사실을 놓고도 군당위원회가 사업에 얼마나 큰 힘을 넣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은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내가 겪은 경험은 나 자신의 경험과 경험의 일반화이다. 9작업반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밀었다. 올해 모내기철전으로 많은 면적의 논밭을 진행하는 혁신이 창조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나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령도업적단위들을 담당하여 결의목표가 끝까지 실천되도록 도와준다. 군당위원회책임일꾼들이 사업에 힘을 날려 낸 동기가였다. 어느날 령도업적단위인 판해협동농장에 나가 결의목표 수행정형을 알아본 군당책임일시 신장추진동무는 몇가지 결의목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집행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데 만족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지 못하고있는 데 원인이였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군당책임일꾼은 전체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진행하며 여기에 당사업의 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였다. 나는 판단이였다. 군당위원회의 주되는 사업 대상은 농촌이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면 농사준비를 영농공정을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앞날되기면서 예견성있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내린 군당위원회는 제

문화회관설계는 농장원들이 상상정신적방법을 썼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도시의 국장부럽지 않게 체육오락시설까지 갖춘 설계로 다시 완성되였으며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문화회관의 훌륭한 건설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을앞도로를 시원하게 펴고 길양옆에 수송이 좋은 나무를 심는 문제로부터 유치원놀이터에 쌓여오던 먼지떨이를 놓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장의 문화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리당비서와 관리위원회장은 언제나 창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해체하였다. 리당비서장 김정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렇다. 창조적인 관점,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본보기단위창조와 경험의 일반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위해 군당위원회가 내세운 원칙이 있다. 그것은 령도업적단위를 본보기로 하여 거기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온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기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것이였다. 주목되는 점은 군당책임일꾼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지도하는 지휘관이

당의 축산정책 관철의 앞장에 선 애국자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농장원 김순애 동무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데서 전국적으로 앞장에 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농장이 최근에 또 하나의 자랑이 늘어났다. 그것은 울먹이짐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토끼기르기를 잘하고있었다.

앞선 토끼사양관리경험을 배우고 각지의 축산전문 일군들이 매일같이 운하협동농장을 찾아오고있다. 그들에게 3작업반 농장원 김순애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집집마다 손이 가는것만큼 되는 법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에 넘친 그 말에 한 평범한 토끼관리공이 당의 축산정책 관철을 위해 바쳐온 불같은 정열과 애국의 열의가 비껴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누가 보지않았든 말이 말하든 혁명조소해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15년전이었다. 김순애 동무가 3작업반 토끼관리공으로 일하게 되였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시아버지 변승두동무인 것이다. 전쟁로병이며 오래동안 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해 온 그는 많은 토끼를 기르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러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믿었다. 김순애동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자원진출했을 때에도 나쁘게 생각하였고 축산작업반에서 돼지관리공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올릴 때에도 대견한 눈길로 보아온 그였

다. 그래서 두손을 들어 머느리로 맞아들였는데도 모른다. 《분데있게 토끼를 길러보아라. 집안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도 머느리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무해 주었다. 김순애동무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토끼관리공, 얼마나 해볼만한 직업인가. 우리 인민들에게 토끼를 너더히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갈 결심이 가슴깊이 간직되었다.

다음날부터 김순애동무는 토끼기르기에 발 벗고나섰다. 그는 힘들줄 모르고 일했다. 토끼기르기에 대한 지식도, 토끼를 길러본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신심을 가지고 일판을 벌였다. 가장 어려운것은 풀원천이 부족했었다. 마을뒤산에는 과일나무들과 바늘살나무들이 짙게 들어있고 앞에는 넓은 포전이 펼쳐져있었다. 거기다 풀을 뜯으려면 10여 미터 떨어진 대령강기슭으로 나가야 하는 리로 가야만 하였다. 하지만 김순애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날 장마철이었다. 대들기갈은 비바람이 쏟아지는 그날 아침도 김순애동무는 함께 일하는 관리공과 함께 풀을 뜯으러 강변으로 갔다. 온몸을 흠뻑 적시며 무거운 물안개를 맞으며 돌아오는 길에 한낱이 있었다. 그들이 마을어귀에 이르

렀을 때였다. 《순애, 뒤길로 가는데 어데?》 김순애동무는 뒤따라오는 그 관리공을 돌아보았다. 흠뻑 젖은 옷이 젖어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괴상하게 보였다. 김순애동무는 그의 손을 잡고 길잡이였다. 《인나, 뒤가 부끄러우니? 이제 우리가 토끼를 많이 기르면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게 될거예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시오.》 그러면서 더욱 힘있게 발걸음을 내걸었다. 흠뻑 젖은 작업복처럼 우산도 쓰지 않고 갈랑갈랑 걸어가며 두 녀성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무거운 물안개를 뚫고 걷는 김순애동무가 후날 《토끼박사》로 알려진 사모님에게 필경은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작업에 대한 애착은 불같은 열정이 생애까지 하는 원천이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헌신자, 위훈자라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배제없이 자기 직업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한 농장원이 김순애동무의 집을 눈다끼러 두드렸다. 《순애동무, 토끼들이 죽어가고있소.》 순간 김순애동무는 가슴에 무언가가 찔릴 뻔한것 같았다. 잠자리를 차고일어나

들지동 작업반토끼우리로 달려가니 여러마리의 토끼들이 쓰러져있었다. 얼마나 애지중지 길러온 토끼들인가. 새끼 낳고 먹이는 열마리밖에 지새운 밤은 열마리밖에 토끼먹이와 땅이 주는 시간을 확정하려고 기울인 노력은 또 열마리였다. (방에 걸려가 쉬워 기르기가 까다롭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그는 쓰러진 토끼를 안고 길을 떠났다. 먼길을 걸어 한 수의방역일군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새날이 밝아올뻔이었다. 그리고 일군을 토끼의 병상대를 확인하고 나서 일일적으로 토끼들이 있는 병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방치로대책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김순애동무는 수의방역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새끼 토끼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언제나 하며 여러 가지 예방치로대책을 따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치료제를 써야 하는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토끼들의 상태를 보고 병을 어떻게 진단할지 치료하는 방법... 토끼기르기에 필요한 참고서적을 읽으면서, 수의방역일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토끼사양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터득해나갔다. 그의 아까울만큼 노력에 의해 여러가지 병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졌으며 토끼관리하는 해마다 늘어났다. (토끼우리를 다시 품직하게

김순애동무의 결집을 농장원들이 적극 지지해나섰다. 3작업반에서 비속분조장으로 일하는 남편이 밤을 밝혀가며 여러가지 집집을 돌며 크게 기를수 있게 2층짜리 건물을 설계하였다. 《돼지, 오리, 계사너들은 아 래에서 기르고 웃음은 모두 토끼우리로 하는게 어떻소?》 《설계가 마음에 들어요. 고 마요.》 이렇게 되어 종전의 텃밭아 되는 축산기지건설이 벌어지게 되었다. 작업반원들이 한사람 같이 떨쳐나 기르려고 할때는 간을 리용하여 불로크를 찍어 벽체를 쌓았다.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김순애동무가 서있었다. 토끼사양관리를 하면서 먹이도 해결하고 불로크도 찍느라 눈은 충혈되었고 입술은 마르기도 했다. 모자라는데 시간이었고 그리울 것이 많이 있었어. 건설이 한창 고조될 때였다. 관리원장님이 농장적으로 한다면 미장공과 함께 건설장에 나갔다. 《순애동무, 이렇게 며칠사이 건물벽까지 다 쌓아놓은 미장 공을 불러 줄게요. 토끼를 더 많이 길러 주는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세요.》 김순애동무가 종자토끼 때문에 애를 태울 때에도, 예방주사약 때문에 안락하게 할 때에도 살신 애를 써며 기르며 기르며 토끼기르기를 통해 크게 벌리라고 적극 떠밀어준 관리원장님이었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깊은 관심과 방축에서 토끼우리는 건실히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그 무렵 김순애 동무는 정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단위의 윤호중동무의 집을 방문하고 토끼기르기경험을 알아 보시었다는 격조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그날 토끼기르기에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윤호중동무를 참된 애국자라 내세워주시면서 울먹이짐을 기르기를 더욱 힘있게 벌려 축산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야 한다고 하신 정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의 가슴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김순애동무는 토끼기르기에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는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릴 줄은 일일하고 분발하여 일하였다. 하루에 수백kg의 토끼먹이를 해결해야 하고 며칠에 한번씩은 먼지의 토끼우리에 대한 소독도 해야 했으며 매 토끼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수의방역대책도 세워야 했다. 품이 보통 들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토끼기르기에 힘쓰지 않았다. 정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는 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힘든줄도 피곤한줄도 몰랐다.

불과 30여마리의 어미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는 오늘 그 수를 백수마리로 불어올렸으며 한해에 4천마리 이상의 새끼토끼를 생산하고있다. 그는 해마다 여러의 토끼기르기를 생산하

박수소리에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앞장에 선 《토끼박사》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모범을 본받아 울먹이짐을 기르기를 더욱 힘있게 벌려갈려는 도내 일군들의 굳은 결심도 비껴나고 있다.

지난 4월, 김순애동무의 토끼기르기경험을 로해하신 정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어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셨으며 사랑의 금반지도 안겨주셨다. 질세의 위인을 좇아 가신 그의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얼마나 축하와 기쁨을 줄어든 말아줄 금액이 조국보위최초로 떠나갔고 공부를 잘하는 둘째아이를 팔려는 수재양성기지에 입학하였다. 자식들을 바래워주며 김순애동무는 더욱 굳게 마음을 다졌다. **일당의 믿음과 사랑에 기여**
이 보답하려!
글 및 사진 분사기자 김승표



김순애 동무 (가운데)

혁명의 꽃을 피우는 밭거름이 되어

김철주사범대학 음악미술학부 교직원, 학생들

얼마전 선교영에 군인체질 응용공장을 찾았다는 초급당부에서 정반당부로부터 김철주사범대학 음악미술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이름과 소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연을 맺은지도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반당부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비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영애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고도 세심히 보살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10년전 어느날, 퇴근길에서 학부장 김영환동무는 가슴에 영애군인매달을 단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가 떨어진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며 김영환동무는 집이 어느쪽인가, 함께 가자고 말했다. 영애군인은 선교구역 대중동에서 살고있는 리명일동무였다.

김영환동무가 방안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군복이 언뜻 안겨왔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병사시절처럼 행세를 살기 위해 애쓰는 영애군인의 정신을

체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다음날 김영환동무는 전담이었던 일을 교직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학부장선생님, 당에서는 영애군인들을 아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영애군인의 친형제, 친형제들이 되어 돌봐줍시다.》 교직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때부터 학부의 교직원, 학생들은 영애군인 리명일동무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다하였다. 해마다 건강검진과 진찰을 비롯한 뜻깊은 날들이 오면 영애군인의 집을 찾아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몇몇전부터 리명일동무가 선교영에 군인체질 응용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 교직원, 학생들의 발걸음은 그가 일하는 공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공장의 영애군인들을 위해 예술소품공예도 펼쳤고 혁신자들을 칭찬한 소포작품도 안겨주었으며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김영환, 백학연동무들을 비롯한 학부의 교직원들은 영애군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예술소품을 준비하기 위해 지혜를 합치었다. 심리학, 박격

찰, 금속공학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영애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보약과 필수품을 마련하는데 지성을 다하였다. 그들의 뜨거운 정열은 페부로 느끼며 영애군인들은 혁명적열정과 양단에 넘쳐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켰다. ...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편지로 보내고 모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장광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반당부에서는 영애군인들을 위해 바치는 음악미술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지성은 끝이 없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였다.

학부청년동맹일군인 정영수 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영애군인들을 위한 우리 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지성은 더욱 뜨거워질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영애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기 위해서 밭거름이 되겠습니다.》 영애군인들을 위해 친형제들의 정을 아낌없이 바치는 음악미술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소행은 고상한 도덕률이 품겨져만 차넘치는 우리 사회에 꽃피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

머칠친 우리는 평양시제 2인민병원 일반외과 의사, 간호원들이 뜻박의 일로 몸에 심한 화상을 당하고 입원하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학생 황철성동무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다. 교장으로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자기의 희생정신이며 동시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평양시제 2인민병원 일반외과 과장 오영철동무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우리 대학생동무들을 널리 소개해주시시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그는 지난 2월 어느날 평양시



주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치는 호환방의사들의 지성은 가정마다에 기쁨을 안겨준다. 평양시제 2인민병원 일반외과 과장 오영철(가운데)을 비롯한 여러명의 간호원들이 들어

황사현상 각지에서 관측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방에서 12일 황사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황사현상이 관측된 후 5월 1일에 또 약하게 나타났다. 11일 몽골 중부에서 강하된 저기압과 그뒤로 나오는 고기압에 의해 고비사막과 중국

의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생하였다. 이 황사는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12일 오후부터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릉도 등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일성총합대학 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총장 겸 평양역에서 김일성총합대학 1부총장 김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 오세광이 마중하였다.

스웨리에의 공산당대표단 귀국

안데르스 칼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에의 공산당 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미국목사 프랭클린 그라함일행 귀국

미국목사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와 일행 13일 전용기로 귀국하였다.

한 구급환자의 소생에 깃든 이야기

평양시제 2인민병원에서

세 2인민병원 수술실앞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교원, 학생들로 차고 넘쳐났다. 저마끔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겠다고 수술실문이 터져나가게 밀려드는 교원, 학생들... 그리고 그들사이에는 가벼운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동무들, 나야 황철성동무의 담임교원이 아니요. 그러나 우당 나무러 수술을 받아야지요.》 《선생님, 이런 때에는 우리 학생재구급이 앞장서서 도와주시시오.》 《강철, 김경철동무, 다른 학공동무들은 좀 양보해 합시다.》

어느때에 그러도 레철이 애도 양보없는 때에가 학생들이 그날만큼 대가

원뿔실었다. 이런 감동깊은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의사, 간호원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처럼 훌륭한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표정을 지어야만 하는, 그들의 앞을 막아서야만 하는 자기들을 막 아껴주었다. 그날 수술에는 환자의 담임교원인 리재복동무와 강철준, 김경연, 황철성, 오영철 등 동무를 비롯한 9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병원에 향한 재료가공학부 교원, 학생들의 걸음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여러가지 보약과 성의껏 마련한 음식물을 안고 찾아와 병문안 룹 그날 배운 강의내용도 알려주었고 하루빨리 완쾌

고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자진하여 맡고 매일 밤을 꼬박 새우다싶이 되어 정든 교정으로 돌아가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정반당부들을 비롯한 학부일군들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일이든 그들 뜻대로 하면 좋다고 부추기면서 그들 뜻대로 하면 좋다고 부추기면서 그들 뜻대로 하면 좋다고 부추기면서 그들 뜻대로 하면 좋다고 부추기면서...

효능높은 의약품 개발

약학연구소에서

최근 의과학적인 약학연구의 연구사들이 건강증진, 건강향상, 건강후수에 특효가 있는 로발관연수액을 연구개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과학연구부부분에서 여러가지 질병들을 미리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큰 임무를 병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기능장애가 오면 인체내에서는 아미노산대사불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오래동안 지속되면 건강향상상태에 빠지게 된다.

간기능장애를 회복시키려면 즉시적인 영양조건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아미노산수액으로써는 오히려 환자의 상태

를 더욱 위태롭게 할수 있다. 약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연구개발한 로발관연수액은 건강증진, 건강향상, 건강향상상태의 환자들에게 알맞는 조성의 아미노산수액이다.

지난 시기 종합아미노산연수액인 뉴아민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약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이번이 절기찬 투쟁을 벌여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로발관연수액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로발관연수액을 개발하는데 이어 그의 응용적용을 위해 전국 여러 단위들에 달려나가 불꽃튀는 전투를 벌였다.

이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재 황해남도인민병원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로발관연수액을 만들어 임상치료에 리용하고있다.

질적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로발관연수액은 우리 식의 앞선 기술과 원료에 의거한 것으로 하여 시, 군인민병원들에서도 얼마든지 자체로 만들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약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를 더욱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분사기자 방경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모잠비크해방전선당 총비서를 작별 방문

안희정 모잠비크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3일 필리피 파우메 모잠비크해방전선당 총비서를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조선인민이 모잠비크인민

과제의회동맹 총서기일행 도착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안데르스 칼손 위장, 판제부민 일인들이 맞이하여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 귀국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고상한 도덕률이 넘치는 내 나라

기쁜소식을 찍어올 때, 지성껏 준비한 기쁨을 나눠달라고 말할 때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시도울고 노래도 부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입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습니다. 지상봉, 리금봉, 명기남, 김명남, 리남철, 조성남, 리명광, 리준영, 한은희...

남달리 학구열이 높아 언제나 기도를 하고 지켜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들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제앞에 나서던 그磊磊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 대학을 졸업하고 당이 맡

준 혁명조소들에 믿음직하게 서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중학 시절의 그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노래도 변함없이 스승을 찾는 그들의 대단한 모습에서 저는 교원들을 혁명가로 존경하며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은정을 다시 한번 깨부르 느꼈습니다.

저는 비록 교단을 내렸어도 제자들에게 인생의 수업장을 끝없이 올려주며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사회주의 이 제도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서성구역 김재동 량 희 숙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 5월 1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서울 윤라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연맹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독자의 편지

이제는 세계 교단을 내린지도 퍼그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교정에 울려진 수업종소리가 그리워지는 마음은 어찌할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중학시절의 제자들이 명칭날과 휴일일, 생일날이면 저의 집을 찾아와 저의 건강과 생활을 성의껏 돌봐주곤 합니다.

얼마전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집에 10여년 전에 졸업한 제자들이 꽃무늬를 안고 들어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눈금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이 생일상상에 저를 앉히며

조선중앙통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명의 본보기단위로 부러우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작업반은 인민군대원호와 체육오락경기, 인민중문화예술활동에서 또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초급일군

그는 언제나 농장일군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고 결된 문제를 남편이 어깨를 들이밀고 풀어가면서 실천적모습으로 대중을 이끌어가고있다.

로동통신원 김선일

목숨바쳐 신념을 지킨 통일애국투사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박용서동지의 빛나는 삶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는 유명무명의 애국투사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중에는 공화국영웅이며 조국통일상수상자인 박용서동지도 있다. 얼마전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을 찾은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벽면에 걸린 박용서동지에게 수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증서, 조국통일상수증서였다. 이렇게 넘겨지면서도 강직하고 의연하며 박용서동지의 모습은 꼭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박용서동지는 해방후 남조선로동계 조직투쟁이 이루어지고 그로 하여 민족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 공감하여 결단코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몸소 발기하고 지도하신 4월남북분열의 소식을 접하고 경정 경을 금할수 없었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전쟁이 일어났다. 서울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출옥한 박용서동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침략자와 미국군을 쳐부수기 위한 피어린 투쟁에서 그는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박용서동지는 남조선에서 뜻을 모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되었다. 사신의 고비를 넘기고 헤쳐나가며 투쟁을 벌이던 박용서동지는 그만 1958년 가을에 체포되게 되었다. 원수들은 그에게서 통일애국의 빛을 빼앗고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의 사상과 뜻에 매혹되어 조국통일투쟁을 위한 길에 한몸 바칠 억척같은 신념과 투지를 키운 그를 굴복시킬수 없었다.

박용서동지의 감옥에서 함께 투쟁한 홍성진, 김만수, 김장원 등 동지들은 그가 간고한 감옥투쟁에서 언제나 자기들의 거울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이 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박용서동지가 실천적방법으로 동지들이 원수들의 악행을 이겨내고 신념을 지키도록 함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선투쟁에도 앞장섰고 고문장에서도 신념을 한디내지 않았다. 용감하고 끝까지의 그의 투쟁은 다른 동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곤 하였다.

1973년에 들어와 남조선과 북조선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없앤다고 하면서 《전향공작전담반》이라는것을 만들고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전향공작전담반》의 고형리들은 수난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자들은 우선 투쟁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골라 먼저 전향시키려고 하였다. 대전교도소에서는 박용서를 포함한 여러 동지들이 그 대상으로 되었다. 이류 형인들 중에는 중세기적고문이나 박용서동지에게 가해졌다. 악한들은 반대기에 바를 수백배나 찢아놓았고 그것으로 박용서동지의 운명을 사정없이 찢고 있었다.

고문장에서 고형리들이 전향하겠는다고 고아며 때때로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도 전향은 하지 않겠다고 단정히 해치곤 하였다.

박용서동지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사방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통증 부어있었다. 하지만 동지들을 만날 때는 미소로 고무격려하곤 하였다.

박용서동지의 최후를 목격한

비전향장기수 양정로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박용서동지는 얼마나 악착하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옹이 피투성이였고 통증 부어 몸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종일 고문을 당하고 저녁녘에 감옥에 돌아왔는데 밤새 앓다가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명하기 전에 그는 나에게 통방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의 뜻을 받들어 싸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살아서 들어가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못 다한 일을 대신해주기 바란다며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다.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며 그이만큼 따르던 박용서동지는 이렇게 원수들의 악착한 고문행위로 희생되었습다.》

전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국통일 3대원칙

방글라데시신문 글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39돌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신문 《에코야》 3일부가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자주적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방향과 근방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그 정당성과 생활요령으로 하여 전세계 조선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이 원칙을 구현한 조선통일의 강령적지침이다.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전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이 통일투쟁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나라의 통일은 확정적이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박용서동지는 해방후 남조선로동계 조직투쟁이 이루어지고 그로 하여 민족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에 공감하여 결단코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몸소 발기하고 지도하신 4월남북분열의 소식을 접하고 경정 경을 금할수 없었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

투쟁에 나서려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

투쟁에 나서려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

투쟁에 나서려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

투쟁에 나서려던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던 그는 1950년 여름에 인원수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

미 야기등포모임 진행

대지진과 해일에 의한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히내지! 미야기등포모임》이 4월 29일 도호주조선총동포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총련중앙기금대책위원회 미야기현분부 일군들과 히내지등포모임 그리고 일본각지의 총련조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총련중앙기금대책위원회 미

야기현분부 위원장 리영식은 히내지등포모임이 경제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령의 위문품에서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 각자 등포모임의 지원에 학교와 등포사회를 하루빨리 복구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미야기현상공회 회장 배만석은 우리에게 조국이 있고 조국이 있고 등포모임이 있고 하면서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 앞장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미야기현상공회 회장 리영식은 히내지등포모임이 경제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령의 위문품에서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 각자 등포모임의 지원에 학교와 등포사회를 하루빨리 복구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미야기현상공회 회장 배만석은 우리에게 조국이 있고 조국이 있고 등포모임이 있고 하면서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에 앞장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로동자들의 권을 수 없는 통일의 지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개성에서 우리측 대표들과 만나 5.1절을 계기로 북남로동자 통일대회개최를 협의하려던 남측로동자 대표들의 얼굴을 가로막았다. 결국 북남로동자대표사이의 실무접촉이 진행되지 못하고 행사는 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열리게 되었다. 북남로동자대표의 5.1절 통일행사 공동개최를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반공일적담당은 온 겨레의 지탄을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2총의 인사들은 4월 28일로 예정되었던 개성시절접촉을 인을 요구하여 서울에서 《남북대결정적중단하라!》, 《민간자주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구호판 등을 들고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만나려는 소리조차 들지 싫어하는 남조선당국은 북남로동자 통일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두 단계를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보수파당은 《승인할수 없다.》고 못박았으며 우리와 모사전송도 못하게 막아주어 왔다. 남조선

당국이 북남로동자들의 통일행사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집요하게 가로막는 보수집권세력의 반공일적책동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데도 좋고 약화된 북남관계 개선하는데도 이바지한다.

북남로동자들의 5.1절 통일행사가 북남단체사이의 대화와 반대연합을 강화하고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북남관계 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효이후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는 과정중 통하여 민족적유대를 공고히 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서로 같은 편대하면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힘있게 벌려온것은 북남로동자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로동자들의 이 노력은 통일의지와 관련된 단결력을 무너우려고 하였다. 그들은 북남로동자들의 통일행사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게 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기에 그것을 거러잡고 파탄시킨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로동자들은 비판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의 통일행사파탄책동을 오히려 그들이 보수파당의 반공일대결

정책을 펼친것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안고 하였다.

이것은 5월 1일 서울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 정당대표들과 함께 로동자통일대회를 연 민주로총과 로동인사들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리행, 동족대결과 단결을 추동하는 온갖 반공일적행동태도와 평화수호를 위한 운동,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는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반대연합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겨레의 앞장서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가치높이 자주와 평화, 통일의 마치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 나갔음을 기쁘게 느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단간단체들의 통일운동과 반대연합을 가로막고 대결정책을 실현해 보고자 발발하던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그 어떤 책동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만큼은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운동을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룩하여야 할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수당국의 반공일대결정책을 준렬히 단죄하면서 통일애국운동의 앞장서서 결합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기만적인 개각놀음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총당이 6일 진행된 기만하는 회담들의 개각놀음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이날 청와대가 개각명단을 발표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국이 정보인 원장, 통일당 장관을 비롯한 국정기획의장인들을 그들의 루인시킴으로써 4.27보총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였다고 논평은 규탄하였다.

북침을 노린 군사적강점책동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 강행하는 미제침략군의 북침정책등에는 대대적 군사투쟁이 야전으로 명령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주둔하고 안보를 지키》겠다는것이 아니라 뉘나 하고 떠밀었다. 이날 호전상황은 미8군경의 명칭이 변경된것은 60여년간이나 치유와 불행은 겪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하루빨리 끝장시킬것은 온 겨레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미국대사에서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얼마전 미국의 한 정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은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느니, 《오래 주둔하겠다.》느니 하고

반 《정부》련대투쟁 선언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산하로동자들이 연대하여 반 《정부》투쟁에 나선것을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의 악정으로 고통받는 로동자들이 더이상 참을수 없애 분노의 함성을 터뜨려 5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당국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로조말살정책에 의해 로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민 주 로 총

《정부》가 살인적인 해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책 마련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반로동정책으로 민주로총 로동자들이 억압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야말로 민주로총이 단결하여 대규모투쟁으로 탄압에 맞서나갈 때라고 언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낭독되었다.

회견문은 모든 로동자들이

반 《정부》련대투쟁 선언

《정부》가 살인적인 해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책 마련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반로동정책으로 민주로총 로동자들이 억압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야말로 민주로총이 단결하여 대규모투쟁으로 탄압에 맞서나갈 때라고 언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낭독되었다.

회견문은 모든 로동자들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떠벌었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도 같은 목소리를 되풀이하였다. 미호전상황을 요란하게 내뿜던 남조선당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대하는 모험적인 불장난수동을 매일같이 벌려놓고있다. 더우기 지난해 《천안》호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 특대형반공화국포위들이 연이어 각종 북침정전영용들이 그러한 세력 없이 강행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군부와 함께 울헤에 함동군사연습, 연합해병대훈련 등 각종 명목의 정전영용수습들을 날과 달을 이어가며 벌려놓고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호전정파들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핵확장억제수단운용습》이라는것을 울헤 하반기

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영구주둔을 꾀하는 목적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정전습을 무력으로 타도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정세속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이 영구강점나탈을 불어대면서 파괴회침망들과 북침정전영용수습들을 판판으로 벌리고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유지하면서 북침정전영용수습을 벌리는 것은 미국의 범죄적기도는 우리 민족적의지를 찢어내려는 전제조선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약탈한 도적으로 된다.

현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악화의 장본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의 근방장애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새겨보고

본사기자 은정철

제 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남조선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파괴회침망들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진상조사단에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강경파추진파들과 평화활동가들, 강제추진에 반대하고 불구하고 군당국이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해군기지는 미군도 리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파쇼독재통치

지금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인민》외세가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이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모략적인 지배세상을 뜻하는 정치판에게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보수파당은 갈수록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려면서, 남조선인민들자세가 현 포수 《정권》의 출현으로 남조선사회는 인권의 모든 권리가 말살되고 파쇼독재가 판을 치는 인권생지옥으로 전락되겠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은 인권을 있어도 인권이 없는 민주주의 무덤, 인권생지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사회적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 삶의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권의 정지, 강제, 사상소외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대중에 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 할 수할 때만이 참담하게 보장된다고 할수 있다.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은 국가주권과 사회제도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정계만도 못하는 말이 잇듯이 외세에게 예속되고 파쇼독재가 짓밟는 인민에게 체제질것이란 노예의 비참한 운명뿐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정권》은 있어도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지않고 아니라 외세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는 허수아비 《정권》이고 근대는 있어도 침략자들의 세의 전쟁머슴군이다. 경제도 외국독점자본에 얽매인 피인제이속에게이다.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제 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제 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파쇼독재통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파쇼독재통치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생편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